古代結負制의 復元과 代制의 起源*

新 井 宏**

Ⅰ. 머 리 말
Ⅱ. 文宗量田法규정의 結面積
  1. 종래의 硏究
  2. 高麗圖經에 보이는 結面積
  3. 方百步爲結의 制度
Ⅲ. 頃의 實面積의 推移
Ⅳ. 崇福寺碑의 細註問題
  1. 崇福寺碑(孤雲集十卷)의 細註
  2. 崇福寺碑異本
  3. 智證大師塔碑文의 後人의 註
  4. 鷄洛國記의 量田記事
  5. 古韓尺 3步(量田步)의 出現例
Ⅴ. 結負制와 代制의 關係
Ⅵ. 隨等異尺制에로의 移行
Ⅶ. 맺 음 말

Ⅰ. 머 리 말

*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의 국가지정연구실 프로젝트와 경상남도의 Mecha-Know21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았다.

** 경상대학교 금속재료공학과 초빙교수
대표논저 : 1992『まぼろしの古代尺－高麗尺はなかった』吉川弘文館(東京) ; 2000「鉛同位體比による靑銅器の鉛産地推定に關して」『考古學雜誌』85-2(東京) ; 2002「《三國史記·遺事》記事에 의한 新羅王京 復元과 古韓尺」『百濟硏究』36

한반도에서는 農地의 實面積을 把握하는 頃畝制와 收量基準을 考慮한 結負制가 新羅時代에서 近代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200년 이상 共存하고 있었다. 이 긴 歷史를 가지는 頃畝制나 結負制가 時代에 따라서 여러가지 변화되어 온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高麗中期以前의 實態에 관해서는 實面積의 把握등의 基本적인 問題에 관해서조차 아직 一致한 見解가 얻어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주로 基本史料의 하나인 文宗量田法(1069년)의 記載에 錯誤가 있어 그 解釋에 관하여 여러 說이 提出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래의 硏究에 있어서 거의 意見의 一致를 보고 있는 部分도 적지 않다. 예컨대 ① 高麗前期이전에는 1頃의 面積은 方100步 이며 1結의 面積과 1頃(100畝)의 面積은 같았다는 것, ② 그러나 高麗後期에는 1結의 面積이 57畝로 달라진 것, ③ 그리고 동시에 三國時代의 傳承記錄에 頃의 表示가 散見되지만 이것은 後世에 옛날의 結를 頃이라고 바꾸니쓴 가능성이 높은 것 등이다.

더욱 덧부쳐 말하면 이 사이에 頃과 結의 어느 쪽의 面積이 변화되었을까에 관해서도 논리적으로는 頃도 結도 함께 변화된 가능성을 排除할 수 없지만 주로 結의 面積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데는 대부분의 同意가 얻어질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視点에 立脚하여, 우선 宣和奉使高麗圖經의 記載에 따라서 文宗量田法의 錯誤를 고쳐, 1結를 方33步 즉 1089步로 하는 부자연한 制度의 起源을 밝히고, 계속하여 崔致遠撰의 崇福寺碑文에 근거하여 統一新羅時代以前의 結負制에 관해서 論議하여 그 結果에 따라서 한반도의 古代結負制의 束(1000束이 1結)과 把(10把가 1束)의 面積이 日本의 代制의 代(束代와 把代)의 面積에 완전히 一致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다.

만약 이와 같이 한반도의 古代結負制와 日本에서의 町段制以前의

代制에 공통面積단위를 갖는 「束」이 存在했던 것이 되면 종래 不明하다고 하여 온 日本에서의 町段制以前의 代制의 起源解明에 크게 貢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Ⅱ. 文宗量田法규정의 結面積

1. 종래의 硏究

『高麗史』 卷78 食貨1 經理에는 文宗量田法(1069년)이 다음과 같이 記載되어 있다.

[史料1] 文宗量田法(1069년), 『高麗史』 卷78, 食貨1, 經理
文宗二十三年 定量田步數 田二(一의誤)結方三十三步 (六寸爲一分 十分爲一尺 六尺爲一步) 二結方四十七步 三結方五十七步三分 四結方六十六步 五結方七十三步八分 六結方八十步八分 七結方八十七步四分 八結方九十步七分 九結方九十九步 十結方一百四步三分 : ( ) 안은 步를 說明하는 割註

이 史料는 1結이 方33步 즉 1,089步인 것을 가리킨 것으로 2結以下는 開平計算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연하지만 잘못이 아니다. 이것을 뒷받침 하는 史料로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다음의 若木郡淨兜寺石塔造成記(956년)가 있다.

[史料2] 若木郡淨兜寺石塔造成記(956년), 高麗前期土地臺帳收錄寺院文書
代下田 長廿七步方廿步 北能召田 南東渠 西葛頸寺田 承孔伍百四拾結得四拾玖負四束

즉 이 記事로부터 540平方步가 49.4負이며 1結은 方33.06步로 計算된다. 이로부터 1結을 方33步로 하는 制度가 956년 以前에 거슬러 오른다는 것도 알 수 있다.

問題는 割註의 「六寸爲一分 十分爲一尺 六尺爲一步」의 部分이다. 이것을 그대로 충실히 읽으면 量田步의 1步는 36尺으로 밖에 理解할 수 없다. 事實 白南雲[1] 以來, 朴克采[2], 李丙燾[3]도 金容燮[4]도 그렇게 읽는다. 다른 것은 기준척으로서 白南雲이 曲尺(30.3cm)을 朴克采가 漢尺(23.1cm)을 李丙燾와 金容燮이 周尺(20cm程度)을 採用한 것이지만 가장 面積이 적은 金容燮의 경우에서도 1結이 17,500余坪 (약57,800㎡)으로 計算되어 있다.

그러나 이 金容燮의 見解에 관해서는 宮嶋博史[5]와 姜晋哲[6]이 동시에 面積이 지나치게 과대하다고 異議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正倉院所藏의 新羅村落文書 (帳籍文書)[7]에 記載되어 있는 畓, 田, 麻田의 合計面積이 周長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나, 同文書의 沙害瀨村의 예와 같이 每戶당의 面積이 27万坪이나 되어버려 耕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의한다.

그 때문에 割註의 「寸爲一分 十分爲一尺 六尺爲一步」의 어딘가에 錯誤가 있다고 하는 見解가 많이 있다. 이것을 최초로 指摘한 것은 朴時亨[8]이며 「十分爲一尺」의 部分의 「分」이나 「一」이나 「尺」의 어느것인가에 錯誤가 있다고 했다. 이 指摘에 대하여 朴興秀[9]도 浜中昇[10]도

---

1) 白南雲, 1937『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p.153
2) 朴克采, 1946「朝鮮封建社會의停滯的本質－田結制硏究」『李朝社會經濟史』
3) 李丙燾, 1961『韓國史・中世編』震檀學會, p.163
4) 金容燮, 1975「高麗時期의 量田制」『東方學志』16, p.106
5) 宮崎博史, 1980「朝鮮農業史上における十五世紀」『朝鮮史叢』3
6) 姜晋哲, 1980『高麗土地制度史硏究』, p.367
7) 이 文書에 관해서는 旗田巍,『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第17章 參照.
8) 朴時亨, 1957「結負制度의 發生과 發展」(科學院創立5周年記念論文集)
9) 朴興秀, 1967「李朝尺度에 관한 硏究」『大東文化硏究』4

李宇泰[11] 도 尹善泰[12]도 같은 意見을 갖고 있지만, 「十分爲一步」라고 읽더라도 「十分爲六尺」이라고 읽더라도 結果적으로는 「十尺爲一尺 六尺爲一步」의 意味가 된다. 즉 量田步1步는 기본척의 6尺이라는 평범한 內容으로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文章으로서는 지극히 장황하고 의미를 이루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測地할 경우의 구체적인 表示로서 필요했다고 하는 見解도 있다.[13]

6尺1步라고 생각하는 경우, 기준척으로서는 營造尺(31cm程度) 또는 高麗尺(35.6cm 程度)을 想定하게 되지만, 李宇泰[14], 李泰鎭[15], 전덕재[16], 尹善泰[17] 등은 다 같이 高麗尺을 주로 생각하고 結의 實面積을 3,500㎡로부터 5,000㎡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說을 채용하면 朝鮮初期의 下田의 結面積[18] 57畝(14,974㎡)에 비해서 大差가 생겨 結이 100畝로부터 57畝에 변화되어 가는 過程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 때문에 朴興秀[19]는 기준척으로서는 高麗後期에 使用되어 있던 30指尺(58.27cm)이 이 시점에서 이미 使用되었다고 생각하여 1結를 13,311㎡으로 計算했다. 그러나 그는 그 結果에도 滿足하지 않고, 文宗量田法의 方33步의 規定은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高麗後期의 方35步制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여, 1結의 面積을 高麗末期의 下田과 같이 14,974㎡로 했다. 이것에 대하여 宮嶋博史[20]는 方35步制가

10) 浜中昇, 1983「高麗前期の量田制について」『朝鮮學報』109
11) 李宇泰, 1989「新羅時代의 結負制」『泰東古典研究』5
12) 尹善泰, 2002「韓國古代의 尺度와 그 變化」『國史館論叢』98
13) 李宇泰, 1992「新羅의 量田制－結負制의 成立과 變遷過程을 중심으로 하여」『國史館論叢』37
14) 李宇泰, 1989 앞 논문 ; 1992 위 논문
15) 李泰鎭, 1998「韓國での結負法の傳統とその特徵」『古代莊園圖と景觀』
16) 전덕재, 2001「新羅中古期結負制의 施行과 機能」『韓國古代史研究』21
17) 尹善泰, 2002 앞 논문
18) 朴興秀, 1967 앞 논문
19) 朴興秀, 1972「新羅와 高麗의 量田法에 관해서」『學術院論文集』11
20) 宮崎博史, 1980 앞 논문

이 시기에 실시되어 있었던 것에는 同意할 수 없다고 하면서 面積적으로는 朴興秀의 생각을 支持하고 있다.

여하든 大勢로서는 文宗量田法의 割註에 어떠한 錯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定說을 얻는 데는 이르고 있지 않다. 더구나 旣往의 學說로서는 어느 것이나 다음에 말하는 『高麗圖經』에 記載된 1結의 面積을 전혀 說明할 수 없고 無視하여 버리고마는 問題도 있다. 割註에 어떠한 錯誤가 있다는 것에는 이미 一致된 見解가 얻어지고 있다. 問題는 그 復元方法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전제에 서면 우선 注目하지 않으면 안되는 文章은 최초의 「六寸爲一分」의 「六」의 部分이다. 이 部分이 「六」이 아니고 「二」, 「三」 또는 「四」이면 全體의 文章에도 重複이 없고 意味가 잘 전해진다. 그렇다면 量田尺이 2尺, 3尺, 4尺, 즉 量田步가 12尺, 18尺, 24尺이 되어, 종래와 같이 量田步가 6尺인가 36尺인가라고 한 극단적인 差異가 아니게 된다.

2. 高麗圖經에 보이는 結面積

宋의 徽帝가 派遣한 國信使에 隨行하여 온 徐兢이 宣和 5년(1123)에 쓴 『宣和奉使高麗圖經』에 한반도의 田制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史料3] 徐兢의 記錄(1123년), 『宣和奉使高麗圖經』 第23, 雜俗2, 種藝
田每一百五十步爲一結

이 文書는 文宗量田法의 약 50년 후의 狀況을 전하는 것으로서 귀중한 記錄이지만 어쩐지 文宗量田法과 關連지어 論議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史料이기때문에 그 文章의 解釋에 관하여는 몇 가지 見解가 있다.

하나는 솔직히 생각하여 徐兢은 宋나라의 사람이니까 여기에 보이는 步는 당시의 宋의 步(5尺1步)라고 하는 金容燮[21]의 사고방식이며, 計算하면 15,600余坪(약51,500㎡)이 된다. 金容燮은 이 數値가 文宗量田法의 規定을 周尺으로 計算한 結果(前出 57,800㎡)에 가까운 것이므로 서로 補完하여 맞는다고 하고 있지만, 이래서는 面積이 지나치게 과대하다는 것은 宮嶋博史[22]나 姜晋哲[23]이 指摘한 바와 같다.

그 때문에 姜晋哲[24]은 여기에 보이는 步의 基準을 周尺에 구하여 보아 그 1結을 6,805坪(22,460㎡)이라고 計算했다. 이 見解는 宋尺에 의한 面積計算을 否定하는 立場에서는 당연한 歸着이지만 卓見이다.

그것은 나중에 논리적으로 이끌어지는 結論이지만 여기서는 우선 徐兢이 왜 「田每一百五十步爲一結」이라고 報告했을까에 관해서 檢討하고 싶다.

徐兢이 이 報告를 쓴 것이 文宗量田法의 약 50년 후이니까 結에 관해서 아마 方33步라고 說明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田每三十三步爲一結」이라고는 쓰지 않았다. 그것은 여기서 使用되어 있는 步가 5尺 1步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徐兢은 이 量田步를 몇 尺으로 理解한 것일까? 그것은 徐兢이 33步를 150步 즉 750尺으로 報告한 것으로부터 逆算으로 알 수 있다. 그는 이 量田步를 750尺÷33 즉 약 23尺이라고 理解한 것이다.

그런데 前述했듯이 文宗量田法의 割註의 錯誤가 「六寸爲一分」의「六」의 部分에 있다 고 생각하여 이것을 二, 三, 四, 五에 바꿔놓아 보았을 때의 量田步는 12尺, 18尺, 24尺, 30尺으로 된다. 23尺은 24尺에 지극히 가깝다. 즉 徐兢은 文宗量田法의 規定에 「四寸爲一分 十分爲一

21) 金容燮, 1975 앞 논문, p.106
22) 宮崎博史, 1980 앞 논문
23) 姜晋哲, 1980 앞 책, p.367
24) 姜晋哲, 1980 위 책, p.371

尺 六尺爲一步」라고 있었든 것을 보고 「田每一百五十步 爲一結」이라고 報告한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것이다. 이리하여 文宗量田法의 規定의「六寸」이「四寸」의 誤記였던 것에 대해 하나의 證據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使用된 기준척이란 어떤 것이였을까? 그 回答의 열쇠는 다음 [史料4]에 보이는 世宗19년(1437년)의 頃畝制에 있다. 즉 文宗量田法의 結을 기준척으로 가리키면 627,264平方尺으로 되지만, 世宗19년의 頃畝制에도 周尺으로 600,000平方尺으로 되어 있어 數値적으로 거의 一致하고 있기 때문이다.

[史料4] 世宗 19年(1437) 頃畝制, 『世宗實錄』

量田事目 量田所用周尺計五步木尺造作 面刻十分 量田時步外餘數量用量 繩每步着小標 每十步着大標 日內累次校正 今量田 以方五尺積二十五尺爲一步 二百四十步爲一畝 百畝爲一頃 五頃爲一字 餘數不用

後述과 같이 오래 전에는 頃 = 結 이던 것은 定說이다. 따라서 高麗中期의 結 즉 頃이 世宗의 時代의 頃과 面積적으로 거의 같았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文宗量田法의 기준척은 周尺이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類推만으로서는 周尺이 使用되고 있었던 충분한 證據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周尺이 使用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決定적인 理由는 다음 「方百爲結의 制度」의 項에서 자세히 敍述하겠지만, 그 전에 과연 周尺이 高麗初期부터 쓰여지고 있었던지 어떤지에 관해서 언급하고 싶다.

그 点에 관해서 筆者는 周尺의 使用이 高麗初期까지 거슬러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根據는 다음에 가리키는 [史料5]와 [史料6]에 의해서이다.

[史料5] 文武兩班墓地規定(975年),『高麗史』卷85, 刑法2, 禁令
一品方九十步 二品八十步 墳高竝一丈六尺 三品七十步高一丈 四品六十步 五品五十步 六品以下竝三十步 高不過八尺

[史料6] 評定各品及庶人墳墓禁限步數規定(1403年),『太宗實錄』卷7
一品墓地方九十步 四面各四十五步 二品方八十步 三品方七十步 四品方六十步 五品方五十步 六品方四十步 七品至九品方三十步 庶人方五步 已上步數竝用周尺

즉 墓地制限에 관해서 高麗前期의 景宗 元年(975)의 規定과 太宗 4년(1403)의 規定이 거의 완전히 一致하고 있는 것이다. 太宗四年의 規定이 周尺에 의하고 있는 것은 明記되어 있기 때문에 高麗前期의 規定도 마찬가치로 周尺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常識的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고방식에는 異論도 있다.[25]

그런데 周尺이란 그 名稱으로부터 분명하듯이 中國의 古典『禮記』王制篇에「古者 以周尺八尺爲步」라고 있는 것에 근거하는 復古尺이다. 한반도에서는 뒤에 周尺의 6尺1步制나 5尺1步制도 보이지만 復古尺의 당초는 8尺이던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文宗量田法의 量田步 즉 周尺24尺은 周尺의 步로 말하면 3步이다. 이것은 文宗量田法이 量田尺으로 方33步, 周尺으로 方99步 즉 方百步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結이나 頃이 當初에는 方百步였다고 하는 것은 다음 項에서 말하듯이 이미 定說이다. 이 점으로부터도 文宗量田法의 割註를 周尺에 의한「四寸爲一分 十分爲一尺 六尺爲一步」라고 復元한 것은 옳았다고 할

25) 이 생각에 대하여 李宗峯, 2000「統一新羅時代의 尺」『韓國中世史硏究』8에서는 太宗 4년의 規定이 太宗 18年에는 各品 다 함께 10步씩 넓혀진 것이므로 太宗 4년의 規定은 面積이 縮小되어 있었다고 考察하여, 周尺이 高麗時代의 初期에 거슬러 오르는 것을 否定하고 있다. 이 論考를 尊重하면 高麗初期에 周尺의 8尺이 1步이던것이 太宗 때에는 6尺1步로 변한 것 인지도 모른다.

수 있을 것이다.

3. 方百步爲結의 制度

이미 高麗前期 이전에는 1頃의 面積은 方100步이며, 1結의 面積과 1頃의 面積이 같았다고 하는 것은 定說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우선 1頃을 方100步로 하는 制度는 前漢以前의 中國의 전통적인 田制이며 그것이 한반도에 남아 있었다고 해도 특히 異常하다고 할 것은 아닌 것이다. 더구나 白南雲도 引用하고 있듯이[26] 智證大師塔銘에는

[史料 7] 智證大師塔銘,『靑莊館全書』卷之六十八「百弓爲結」

新羅曦陽山鳳岩寺 智證大師塔銘 崔孤雲所撰有曰 捨田五百結 後人有註之者曰 方俗 以周百弓爲結 四肘爲一弓 肘一尺八寸 四肘卽七尺二寸 蓋以結爲田數 自新羅時已有之 古者 百步爲一畝 百畝當一結

라고 있어 명백히 百步爲一畝 즉 頃이 方100步인 것과 및 옛날에는 結이 100畝 즉 1頃 이던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後人의 註가 어느 時代의 것인가 분명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頃이 方百步였다고 確定은 할 수 없지만, 白南雲[27]도 朴興秀[28]도 頃이나 結을 方100步라고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특히 異論은 提出되어 있지 않다.

그 외에도 頃과 結이 同一이었던 것을 보이는 史料로서는 駕洛國記의 量田記事가 있다.

---

26) 白南雲은『靑莊館全書』의「百弓爲結」의 項을 卷八이라고 錯覺하고 있다.
27) 백남운, 1937 앞 책
28) 朴興秀, 1972 앞 논문

[史料 8] 駕洛國記의 量田記事, 『三國遺事』 卷 2, 駕洛國記

㉮ 近廟上上田三十頃 爲供營之資 號稱王位田……淳化二年 金海府量田使中大夫趙文善申省狀稱 首露王陵廟屬田結數多也 宜以十五結乃舊慣 其餘分析於府之役丁……節使(量田使稱也)受朝旨 乃以半屬於陵園 半以支給於府之徭役戶丁也……後人奉使來 審檢蕨田 十一結十二負九束也 不足者三結八十七負一束也

이것은 新羅文武王의 時代(661년)에 30頃으로 되었던 토지가 高麗前期의 淳化2년 (991년)에는 그 반이 15結이라고 생각되고 있었으니, 이것으로부터 高麗前期에는 結과 頃을 同一하게 理解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하여 文宗量田法과 『高麗圖經』의 記事로부터 구한 結이 方百步였다고 하는 結論은 종래의 定說과 완전히 一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으로부터도 文宗量田法의 割註를 周尺으로 「四寸爲一分」이라고 읽은 것이 正當함을 逆으로 證明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겨진 疑問은 왜 1頃 혹은 1結을 方100步로 하는 알기 쉬운 方式으로부터 方33步라는 복잡한 制度에 이행했을까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뒤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그 전에 高麗前期 이전의 頃의 面積과 世宗 19년(1437)에 制定된 頃畝制의 頃의 面積에 관해서 考察하여 두고 싶다.

Ⅲ. 頃의 實面積의 推移

世宗19년(1437년)에 制定된 頃畝制는 이미[史料4]에 보이듯이 周尺으로 600,000平方尺이라고 하고 있다. 이 당시의 周尺의 길이는 朴興秀[29]27)의 復元値 20.81 cm와 李宗峯[30]의 復元値20.5~20.7cm를 參考로 하여 20.7cm라고 하면 25,709㎡이다.

29) 朴興秀, 1967 앞 논문 ; 1972 앞 논문
30) 李宗峯, 2001「朝鮮前期度量衡研究」『國史館論叢』 95

한편 新羅時代의 1頃에 관해서 筆者[31]는 古韓尺의 6尺1步에 의한 方100步로 復元하고 있다. 古韓尺을 26.7 cm로서 計算하면 25,664㎡로 되며 兩者는 時代의 差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誤差없이 一致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文宗量田法의 時期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대의 周尺의 길이에 관해서는 定說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朝鮮前期보다도 若干 짧고, 姜晋哲[32]은 曲尺의 0.66尺 즉 20.0 cm를 使用하고 있다. 그 경우 周尺의 1步는 1.60 m이며, 文宗量田法을 周尺의 方百步라고 理解하면 1結은 25,600㎡이며, 이것도 新羅時代와 朝鮮前期의 頃과 一致하고 있다.

이 事實은 한반도에서 長期間에 걸쳐 頃畝制의 實面積이 거의 變化하지 않았든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古韓尺이란 어떠한 尺度였을까? 상세한 것은 參考文獻[33]에 미루기로 하고 그 意義를 간단히 紹介하여 두고 싶다.

中國에서의 尺度의 歷史에 관해서는 紀元前 5世紀경으로부터 多數의 잣대의 出土品 있어 상세히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나 日本의 경우 7世紀以後부터 29.8cm 程度의 唐尺이 使用되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6世紀以前의 尺度에 관해서는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日本에서도 한반도에서도 唐尺系를 제외하면 아직 이 시대의 尺度에 관한 文獻史料나 자의 出土例가 없고 유력한 物證이 결여하기 때문이다.

단지 日本에서는 大化前代에 高麗尺이라고 稱하는 35.6cm 程度의 尺度가 쓰이고 있었다는 說이 옛부터 있었고, 이것이 中國의 東魏尺의 길이와 가까우므로 한반도에서는 東魏尺 혹은 高勾麗尺으로서 여러가지

31) 新井宏 2002「《三國史記·遺事》記事에 의한 新羅王京 復元과 古韓尺」『百濟研究』36

32) 姜晋哲, 앞 책, p.371

33) 新井宏 1990~1992「古代尺度復元法の研究」(第1~3報)」『計量史研究』13~15 ; 1992『まぼろしの古代尺』

의 檢討에 쓰여져 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종래 그 根據라고 하고 있었던 事實關係의 몇 개가, 그 후의 調査등으로 否定되어 實存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것이다.[34]

차선지책은 수많은 遺蹟이나 遺物을 조사하여 어떠한 尺度로 만들어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를 檢證하는 方法이다. 자의 出土나 記錄이 없다면 直接遺物이나 遺蹟에 물어보자라고 하는 어프로치이다. 그 結果 얻어진 것이 筆者가 提唱하고 있는 26.8cm 前後의 古韓尺이다.

즉 이 古韓尺은 4~8世紀의 한반도 및 日本을 對象으로 古墳,宮殿, 寺院 등에 관해서 약 70種 약 1000件의 방대한 計測데이터를 對象으로 하여 컴퓨터에 의한 定量적인 解析을 하여 그 中에서 학률적으로「가장 잘 맞는 尺度」를 골라 時代나 地域的인 分布에서 整理하여 종합적인 評價를 한 結果 얻어진 것으로, 奈良에 現存하는 法隆寺나 法起寺 혹은 發掘調査에 의해 상세한 資料가 얻어진 慶州의 皇龍寺의 建物에도 잘 一致하고 있다.[35]

또한 中國에서는「隋書律歷志」에 記載된 後周玉尺(北周)의 길이를 26.75 cm라고 考證하고 있기 때문에 同時代에 古韓尺과 같은 길이의 자가 中國에 存在했던 것도 알려지고 있다.[36] 그 위에 北魏의 洛陽에

---

34) 本稿의 6「結負制와 代制」에서 간단히 紹介하고 있다.

35) 奈良에 實存하는 法隆寺의 金堂 五重塔 回廊 혹은 法起寺의 三重塔은 柱間隔으로부터 建築部材에 이르기까지 古韓尺에 一致하고 있다. 또한 慶州皇龍寺의 塔 金堂 講堂에 대해서도 高麗尺이나 唐尺으로서는 전혀 맞아 있지 않지만 古韓尺이면 잘 맞아 있다. 다음표 참조.

建築部位	測定値 (m)	古韓尺(cm)		唐尺(cm)		高麗尺(cm)	
		尺數	尺長	尺數	尺長	尺數	尺長
塔의 柱間	3.167	12.0	26.4	10.7	29.5	9.0	35.2
金堂身舍	5.003	19.0	26.3	17.0	29.4	14.2	35.2
金堂庇出	3.425	13.0	26.4	11.6	29.5	9.7	35.3
講堂桁行	5.462	20.5	26.6	18.5	29.5	15.5	35.2
講堂梁行	3.970	15.0	26.5	13.5	29.4	11.2	35.5
東廻廊桁行	4.130	15.5	26.6	14.0	29.5	11.6	35.6

熙平元年(516년)에 만들어진 永寧寺 九重塔의 營造尺도 中國의 學者는 27.2cm라고 復元하고 있다.[37]

그러나 古韓尺에 관해서 직접적인 證據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歸納적으로 얻어진 尺度에 불과했다.

그것에 대하여 최근 筆者는 이 古韓尺이 新羅王京의 條坊設計에 쓰여지고 있었던 것을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文獻史料와 考古學적인 發掘調査의 結果를 對比하여 檢證했다.[38] 즉 新羅王京의 條坊에 관해서는 近年에 서서히 밝혀져 왔지만 皇龍寺周邊의 發掘調査結果로서는 거의 方格160m로 되어 있고 이것을 「三國史記」의「長三千七十五步 廣三千十八步 三十五里 六部」의 解析結果와 對照하여 古韓尺의 1步를 1.602m(古韓尺 26.7cm)로 復元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 나타난 160m方格은 古韓尺에 의한 1頃에 一致한다. 여기서 古韓尺은 文獻적인 뒷받침을 얻을 것이다.

그 밖에도 1方格을 160m로 하는 傍證이 있다. 그것은 新羅時代의 地方都市의 地籍圖硏究를 통해서 南原小京이나 尙州邑城(沙伐州)등에 160m方格이 存在하고 있었다는 報告[39]가 있으므로, 160m方格의 토지분할이 新羅王京 뿐만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일련의 硏究結果가 하나에 收斂되었다. 남은 問題는 왜 方33步라는 복잡한 制度에 이행했을까이다.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 항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그 前에 古韓尺과 周尺의 關係에 관해서 말하여 두고 싶다.

前述했듯이 周尺이 復古尺인 것은 名稱부터 틀림없다. 더구나 古韓尺의 1步(6尺)는 周尺의 1步(8尺)와 거의 완전히 一致하고 있다. 따라서

---

36) 丘光明 外, 2001 『中國科學技術史－度量衡卷』, p.284
37) 鐘曉靑 1998 「北魏洛陽永寧寺塔復元探討」 『文物』 1998-5
38) 新井宏, 2002 앞 논문
39) 朴泰祐, 1987 「統一新羅時代의 地方都市에 對한 硏究」 『百濟硏究』 18

周尺이 古韓尺의 1步를 기초로 하여 시작된 것은 용이하게 推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理由는 어떤 것일까? 이 점에 관해서는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40] 아마 그 당시 中國의 토지제도를 意識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中國에서는 前漢보다 以前에는 1頃이 10,000步였지만 唐代나 宋代에는 5尺1步의 24,000步(600,000평방척)에 바뀌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1頃이 여전히 10,000步이며 제도적으로 一致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10,000步(360,000 平方尺)를 240,000步(600,000平方尺)에 一致시키는 일이다. 計算하면 周尺= 0.775古韓尺이다. 이것을 周尺= 0.75古韓尺 즉, 8周尺= 6古韓尺 = 1步로 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筆者의 생각이다.

이렇게 하여 外觀上으로는 中國式의 頃畝制度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前出의[史料4]에 있는 世宗19년의 頃畝制는 高麗初期까지 거슬러 오를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Ⅳ. 崇福寺碑의 細註問題

1. 崇福寺碑(孤雲集十卷)의 細註

新羅下期의 眞聖女王代(887~897년)에 만들어진 崔致遠의 崇福寺碑는 몇 개의 碑片이 남아 있을 뿐이고 拓本도 없다. 그러나 碑文은「四山碑銘」으로 收錄되어 그 註解의 몇 개가 전해지고 있다. 그 속에서 基礎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孤雲集十卷』이며 거기에는「結」과「苫」의 細註로서 다음의 文章이 있다.

40) 新井宏, 1992「量田制における頃と結」『朝鮮學報』144

[史料 9] 崇福寺碑 結細註, 『朝鮮佛教通史』下 玉龍子權弄堪輿術條

東俗 以五畝減百弓爲結 除一斗爲苫

이 細註가 結負制나 量制의 硏究에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崔致遠의 自註인가 아닌가에 관해서는 李丙燾[41]가 否定적인 見解를 보이고부터는, 이것을 結負制의 史料로서 적극적으로 活用하는 硏究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尹善泰[42]가 崇福寺碑의 상세한 復元을 시도하여 그 結果 이 細註를 崔致遠의 自註였다는 結論을 내었다. 尹善泰는 이 結論에 근거하여 新羅下代의 量制에 관해서 整合性이 높은 硏究成果를 올리고 있다.[43]

이 細註가 崔致遠의 自註라고 判明되면 結負制에 관해서도 지극히 중요한 史料이다. 그것은 智證大師塔銘의[史料7]에 「以周百弓爲結…… 古者 百步爲一畝 百畝當一結」이라고 있는 것과는 달리 5畝減으로 明記하고 있기 때문이다.

唐으로부터 歸國한 崔致遠이 唐의 制度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崔致遠이 東俗이라고 쓰고 있는 以上 唐人에게도 통하도록 新羅의 狀況을 注釋했다고 생각해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가리킨 結은 方百弓[44] 즉 10,000步로부터 5畝 減小하여 곧 1,200步를 減한 8,800步를 뜻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하여 온 結을 方100步 즉 10,000步로 하는 解釋과 크게 矛盾된다.

그렇다면 新羅時代에는 高麗前期와는 달리 1結은 약 0.9頃이였을까?

---

41) 李丙燾, 1959 『韓國史』(古代編) 震檀學會, p.649

42) 尹善泰, 2000(a) 「新羅崇福寺碑의 復元」 『佛教美術』 16

43) 尹善泰, 2000(b) 「新羅下代의 量制에 관한 一試論」 『新羅文化』 17·18

44) 尹善泰는 2000(b) 위 논문에서 百弓을 面積百步로 理解하고 있지만 弓은 길이의 步와 面積의 步의 混亂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길이의 步를 弓으로 한 것이고 百弓은 方百弓으로 理解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崔致遠의 細註를 바탕으로 하여 쓰여졌다고 생각되는 智證大師塔碑文[史料7]에는 「以周百弓爲結」이라고 되어 있어 분명히 方百弓의 意味로 되어 있다.

이 疑問에 대하여는 바로 里의 面積과 頃의 面積의 關係에 생각이 미친다. 즉 1里의 面積(井)은 方300步이며 1頃의 面積은 方100步이니까 1里는 9頃이다. 따라서 1里= 10結이라고 하면 1頃 = 0.9結 이다. 토지제도로서 里(井)의 下位單位로 里= 10結, 結 = 100負, 負 = 10束, 束= 10把가 存在하고 있었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단순한 假想이 아닌 것은, 이 假定이 方33步制의 부자연한 制度의 發生을 명쾌히 說明하기 때문이다.

어느 時期 結이 0.9頃(9,000步)이였다고 생각하여 본다. 그렇다면 1,000束이 1結이니까 束은 9步 즉 方3步에 該當한다. 따라서 3步를 1量田步라고 하면 束의 面積測定은 지극히 간단히 된다. 거기에 3步를 1量田步로 하는 方33步의 부자연한 制度가 태어난 理由가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白南雲[45]이 말하듯이 高句麗에서는 頃畝制가, 百濟에서는 結負制가 쓰이고 新羅에서는 양자가 混用되어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어느 時点에서 結를 頃에 一致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結을 頃에 맞추어 方100步라고 고쳐 정하였다. 이것을 3步의 量田步로서 가리키면 方33.33步 즉 方33步이다.

여기에 文宗量田法 즉「田一結方三十三步」의 부자연한 規定이 명쾌히 이끌어 내어진다.

統一新羅時代에는 結은 0.9頃이였다. 즉 1頃의 面積을 25,664㎡(古韓尺 26.7cm 基準으로 算出)이라고 하면 結은 23,098㎡(7,000형)로 計算된다. 따라서 1束은 23.1㎡(7형)이다.

이러한 結論을 이끌어내는데 崇福寺碑文中의 細註가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이것을 崔致遠의 自註라고 평가한 尹善泰의 業績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동시에 이 細註는 後世의 學者로서는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筆者의 見解이며, 역으로 尹善泰의

45) 白南雲, 1937 앞 책, p.155

推論의 正當性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 崇福寺碑異本

崇福寺碑의 異本에 丁茶山이 전하는 다음 註가 있다.

[史料10] 崇福寺碑 結細註(異本), 丁茶山『與猶堂全書』第1集 卷12 田結論
三十肘爲百弓 而一肘本是二尺 五百畝減六十尺 以爲一結

이 文章을 [史料9]와 比較하여 보면 錯誤가 많고 분명히 後世의 註라고 생각된다. 茶山은 이것을 崔致遠의 自註라고 했지만, 李丙燾[46]가 이것을 後人의 註라고 본 것은 지당한 일이다.

錯誤는 아마 2단계에 걸치고 있는 것 같다. 五百畝는 아마 五畝의 잘못일 것이다. 또한 一肘는 2尺, 一弓은 5尺 또는 6尺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고치면 「三百肘爲百弓 而一肘本是二尺 五畝減六百尺 以爲一結」이라고 된다.

그렇다면 [史料9]의 內容을 그대로 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情報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3. 智證大師塔碑文의 後人의 註

崇福寺碑細註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먼저 들었던 [史料7]의 智證大師塔銘의 後人의 註가 있다. 이 註가 方俗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崇福寺碑細註를 參照하고 記載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기에는「以周百弓爲結 四肘爲一弓 肘一尺八寸 四肘卽七尺二寸……古者 百步爲一

46) 李丙燾, 1959 앞 책, p.649

畝 百畝當一結」이라고 되어 있으며 五畝減의 字句가 빠져 있다.

이 註는 後半에서, 옛날은 一結이 百畝 즉 1頃 이였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보아서, 적어도 高麗中期以後의 것이다. 더구나 이 註는 統一新羅時代의 結의 面積에 관해서 적고 있다. 왜 五畝減이 빠져 버린 것일까. 단순한 錯誤였을까?

다만 五畝가 빠진 대신에 여기서는 百弓을 구태여 720尺이라고 解說하고 있다. 1肘를 1.8尺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尺은 周尺을 뜻하고 있는 것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方百弓의 面積은 518,400平方周尺으로 計算된다. 李朝初期에는 1頃이 600,000平方周尺이니까 1結 = 0.864頃이 된다.

이 計算結果는 崇福寺碑의 原註의 計算結果 즉 結 = 0.88頃과 매우 잘 合致하고 있다. 이것은 後人도 統一新羅時代의 結의 面積에 관해서 崇福寺碑註를 바탕으로 하여 筆者와 같이 結의 面積을 0.9頃으로 理解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

4. 駕洛國記의 量田記事

以上의 解析에 의해서 統一新羅時代에는 結 = 0.9頃이며, 그 후의 結 = 頃에 비교하면10%정도 작던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觀点에서 보면 前出의 駕洛國記의 量田記事[史料8]를 거듭 注目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 史料는 新羅의 文武王때에 首露王능의 王位田30頃이었던 토지의 반을, 淳化二年(991년)에는 15結이라고 보고 있어, 頃과 結을 同一視하고 있는 동시에 實際로 檢田한 바 11結 12負 9束밖에 없었던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미 指摘되어 있듯이[47] 三國時代의 傳承記錄에 비록 頃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은 後世에 와서 옛날의 結를 頃이라고 바꾸어 쓴 가능성이

높으니까, 王位田의 30頃은 옛날의 30結이 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이 記事는 옛날의 結의 面積이 高麗初期보다 좁았던 것을 가리키고 있게 된다.

이것은 土地折半分割때의 誤差 혹은 오랜 歲月동안의 變化로 볼 수도 있겠지만 高麗初期의 結의 面積이 新羅의 面積에 비교하여 增加하고 있었던 實情을 전하고 있을 可能性도 높다.

5. 古韓尺 3步(量田步)의 出現例

以上의 論議에 의해서 統一新羅以前에는 古韓尺 方3步를 1束으로 하는 結負制가 存在했던 것을 論證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이 推論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古韓尺의 3步 즉 4.8 m을 基本單位로하여 設計된 寺院의 建物配置例가 百濟와 日本에 多數있는 것을 表 1에 정리하여 紹介해 두고 싶다.

表로부터 분명하듯이 百濟의 益山彌勒寺의 경우 등에서는 主要建築間의 距離가 4.8 m의 12倍, 14倍, 18倍, 21倍, 25倍, 60倍로 設計되어 있고, 白南雲이 말하고 있듯이「百濟에서 結負制가 實施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見解에 符合하고 있다.

V. 結負制와 代制의 關係

日本에서는 天平尺(唐大尺: 29.8 cm 程度)에 의한 360步1段 3600步1町의 소위 町段制가 實施되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代制라고 불리우는 토지제도가 행하여지고 있었다. 이 代制는「令集解」田令田長條所引의 慶雲三年格에 令前租法으로 쓰여 있어, 이 令前의 令이 大寶令을 가리

47) 朴時亨, 1957 앞 논문 : 李宇泰, 1989 앞 논문

<표 1> 古代韓日寺院의 建物配置에 나타난 量田步(3古韓尺)

國名	寺院名	距離測定區間	測定値 (m)	量田步(3古韓步)	
				步數	尺長(m)
日本	川原寺	中門~塔	23.8	5	4.76
百濟	軍守里廢寺	塔~金堂	24.2	5	4.84
日本	北野廢寺	中門~塔	24.4	5	4.88
百濟	金剛寺	塔~金堂	24.5	5	4.90
日本	川原寺	南門~中門	28.9	6	4.82
日本	四天王寺	中門~塔	29.0	6	4.83
日本	山田寺	中門~塔	29.1	6	4.85
百濟	陵山里寺	金堂~講堂	33.3	7	4.76
日本	飛鳥寺	中門~塔	33.5	7	4.78
百濟	王宮里寺	塔~金堂	38.0	8	4.75
百濟	王宮里寺	金堂~講堂	43.0	9	4.78
百濟	東南里廢寺	金堂~講堂	43.9	9	4.88
日本	川原寺	中金堂~講堂	48.1	10	4.81
日本	川原寺	南大門~中門	52.8	11	4.80
日本	法隆寺	塔~講堂	57.5	12	4.79
百濟	彌勒寺	東塔~中金堂	57.7	12	4.80
百濟	彌勒寺	西塔~中金堂	57.7	12	4.80
百濟	彌勒寺	東金堂~中金堂	57.8	12	4.82
百濟	彌勒寺	西金堂~中金堂	57.8	12	4.82
百濟	定林寺	塔~講堂	58.0	12	4.83
百濟	彌勒寺	中院東西回廊間(心)	66.4	14	4.74
百濟	彌勒寺	塔~幢竿	66.7	14	4.76
日本	飛鳥寺	南門~西門	66.7	14	4.77
日本	法輪寺	南大門~中門	66.7	14	4.76
日本	吉備池廢寺	塔~金堂	85.0	18	4.72
日本	川原寺	東僧坊~西僧坊	86.4	18	4.80
百濟	彌勒寺	東西幢竿間	86.5	18	4.81
日本	法隆寺	西回廊~東回廊(心)	86.7	18	4.82
百濟	彌勒寺	中院南北回廊間(心)	86.8	18	4.82
百濟	彌勒寺	塔~南門	100.4	21	4.78
百濟	彌勒寺	東僧坊~西僧坊	118.7	25	4.75
日本	若草伽藍	塔~北柵	119.6	25	4.78
日本	北野廢寺	東土壘~西土壘	121.0	25	4.84
日本	飛鳥寺	中門~講堂	121.0	25	4.84
日本	北野廢寺	北土壘~南土壘	144.0	30	4.80
百濟	彌勒寺	外郭垣址南北間	288.0	60	4.80

키는 것인가 淨御原令 혹은 近江令을 가리키는 것인가에 관련하여 긴 論爭史가 있다.

어떻든 이 代制는 町段制에 이행한 以後에도 부분적으로 町段의 下位單位 즉 1段이 50代, 1町이 500代로서 存續하고 있었기 때문에 面積적으로는 1代가 23.02㎡(天平尺을 29.8cm으로서 計算)이던 것은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 代의 單位에 관해서는 束代로 記錄되어 있는 例도 많이 있다. 예컨대 天平七年의 讚岐國山田郡弘福寺領田圖에「右田數十一町四百十二束代」等의 表現이 많이 있고, 浜松市伊場遺跡의 大溝에서 出土한 木簡에도 「□□ 百七十六束代又江田」[48]이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法隆寺伽藍緣起幷流記資財帳에는「二百十九町一段八十二步」의 토지를「十万九千五百六十一束二把代」라고 적고 있어 代가 束代 把代의 意味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알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의 結負制는 結 = 100負, 負 = 10束, 束= 10把이다. 따라서 日本의 束代나 把代와 結負制의 束 把는 완전히 共通性이 있다. 더구나 束把는 中國의 田制에는 보이지 않는 單位이다. 그 때문에 日本에서도 옛부터 日本과 한반도의 類似性을 指摘하는 의견이 있었다.[49]

그러나 이전에는 束把는 收量의 單位로서 밖에 理解되어 있지 않던 時期가 있어 龜田隆之[50]도 「이 点(類似性)을 너무 强調하는 것은 危險」하다고 하여 議論이 깊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現在는 束 把가 面積單位이던 것이 밝혀지고있어 당연히 그 關係를 再檢討하여 볼 필요가 있다.

結論부터 말하면 本稿에서 구한 한반도의 束의 面積은 23.09㎡(古韓尺을 26.7 cm로서 計算)이다. 한편 日本의 束代의 面積은 23.02㎡(天平尺을 29.8 cm으로서 計算)이다. 양자의 面積은 완전히 一致하고 있는

48) 浜松市遺跡調査會, 『伊場遺跡出土文字周成』
49) 龜田隆之, 1955 「日本古代に於ける田租田積の研究」『古代學』 4-2, p.137의 註 6
50) 龜田隆之, 1955 위 논문

것이다. 이 結果만으로도 日本의 代制의 起源이 한반도였다는 것을 主張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代制의 起源에 관련하는 종래의 見解는 한 마디로 말하면「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였기 때문이다.

물론 종래의 學說에서도 일정한 說明은 행하여지고 있었다. 그것은 1代의 面積은 町段制의 步로서는 7.2步이지만, 横山由清[51]이 指摘했듯이 高麗尺의 6尺을 1步라고 하면 代가 마침 5步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 起源이라고 하는 立場이다. 적어도 이 以外에 代를 합리적으로 說明하는 手段은 없기 때문에 물론 유력한 생각이였다.

그러나 5步를 基本單位로 하는 것에 違和感을 느끼고 있었던 硏究者도 많았다. 内田銀藏[52]은 代의 法이 步을 基定으로하여 일어난 證據는 없다고하여 高麗尺설을 물리치고 대충 稻1束을 얻을 수 있는 田積을 1代로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논했다. 이것에 대하여 坂本太郎[53]도「처음은 稻1束을 얻을 수 있는 田은 1代라고 말했을 것이다」라고 일정한 이해를 보이며 彌永貞三[54]도「그 가장 작은 單位는 일정한 길이를 1변으로 하는 正方形으로 表現된다고 생각하는 쪽이 常識적일까요? … 再考의 余地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다. 岸俊男[55]도 代制의 方格地割을 논하는 속에서 高麗尺의 5步가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은 順序가 逆이다고 彌永貞三의 생각에 同調하고 있다.

또 龜田隆之[56]는 1段250步制(高麗尺6尺1步制)가 보이는 곳은 [今足勘文]뿐이며 더구나 이 [今足勘文]은 慶雲三年格에 따라 쓰여 있으면서, 그 慶雲格自體에는 250步의 記載가 없으므로, 高麗尺의 5步를 起源으로 하는 說에는 강한 疑問을 던지고 있다.

---

51) 横山由清, 1926『日本田制史』
52) 内田銀藏,『日本經濟史』(1916『日本經濟史の硏究』收錄)
53) 坂本太郎, 1938『大化改新の硏究』, p.342
54) 彌永貞三, 1980「半折考」『日本古代社會經濟史硏究』
55) 岸俊男,「方格地割の展開」『日本書紀硏究』
56) 龜田隆之, 1955 앞 논문

그 위에 高麗尺의 6尺은 214 cm에나 달하고 있으므로 도저히 종래의 步(보폭2步)의 槪念에는 안 맞은 것도 큰 問題이다.

이와 같이 종래는 高麗尺의 6尺을 1步로 하는 5步를 代의 起源으로 想定하면서 많은 疑問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에 교대할 수 있는 유력한 學說이 없는 속에서 高麗尺설이 일단 定說적인 立場을 유지하여 온 것이 實情이다.

그것에 반하여, 代의 起源이 한반도의 結負制에 있으며 束把의 面積이 완전히 一致했던 것으로 되면 高麗尺에 의한 代制說에 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할 것이다.

高麗尺의 存在에 관해서 筆者는 전부터 강한 疑問을 나타내어 왔다.[57] 그것은 ① 高麗尺의 起源이라고 되어 있었던 東魏尺의 길이가 『隋書』 律歷志의 記載의 잘못이며 『宋書』에 있듯이 약 30 cm가 옳다고 하는 것, ② 高麗尺의 證據라고 되어 있었던 四天王寺, 皇龍寺, 定林寺의 柱間間隔이 그 후의 發掘調査로 무의미한 것으로 되어 버린 것, ③ 따라서 高麗尺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確認되는 建築物이 아직 한 개도 없다는 것(法隆寺와같이 高麗尺의 0.75尺을 1支로 하는 建物은 있지만 그 1支는 古韓尺이다), ④ 高麗尺의 5尺1步의 存在는 天平尺의 6尺1步와 同長이며, 高麗尺의 實存을 뒷받침 하는 理由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 ⑤ 尺度史의 흐름 속에서 보면 高麗尺만이 이상히 긴 것 等이 주된 理由였다. 高麗尺이 實存한 것을 증명하는 최대의 證據는 오히려 前代의 代制에 어울리는 高麗尺의 6尺1步制의 存在였다.

따라서 代制의 起源을 高麗尺에 구할 필요가 없어진, 지금 高麗尺을 前提로해서 벌어져 온 여러가지 학설 중에는 再檢討를 要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57) 新井宏, 1992 앞 책, p.100

VI. 隨等異尺制에로의 移行

本稿에서 高麗前期의 結負制에 왜 方33步制가 채용되게 되었을까에 관해서 합리적인 說明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方33步의 結負制는 그 후 高麗末期에는 上田에서는 指尺의 20指尺, 中田에서는 25指尺, 下田에서는 30指尺을 量田尺으로 하는 方35步의 隨等異尺制로 변하여 간다.

方33制로부터 方35步制에로의 이행에 관해서는 이미 「量田制における頃と結」[58]에서 자세히 敍述했다. 그 趣旨는 方33制가 당초의 古韓尺의 3尺을 量田尺으로 하는 制度로부터 高麗中期에 周尺의 3尺을 量田尺으로 하는 制度로 바꿔고, 다시 隨等異尺制에 의한 方35步制에로 이행했다고 하는 것이였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現在도 基本的으로는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의 硏究結果와 합쳐서 結의 面積推移로서 정리하여 두고 싶다. 表現으로서는 頃의 面積을 基準으로하여 畝로서 表示하고 있지만, 그것은 頃의 面積에 그 사이 큰 변동이 없었다고 하는 이번의 硏究結果에 따른 것이다. 平方米에의 換算은 1頃을 26,000㎡로 하면 槪算은 얻어지기 때문에 생략한다.

三國時代・統一新羅時代(古韓尺 方100步를 1頃, 結=0.9頃) 90畝
高麗初期(古韓尺 또는 周尺에 의한 方100步를 1頃, 結=頃) 100畝
高麗中期(600,000平方周尺을 1頃, 結=方33步, 量田尺: 3周尺) 60畝
高麗末期(600,000平方周尺을 1頃, 結=方35步, 量田尺: 30指尺) 57.6畝(下田)
(600,000平方周尺을 1頃, 結=方35步, 量田尺: 25指尺) 39.9畝(中田)
(600,000平方周尺을 1頃, 結=方35步, 量田尺: 20指尺) 25.4畝(上田)

58) 新井宏, 1992 앞 논문

Ⅶ. 맺 음 말

三國時代에 시작되어 近代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한반도의 頃畝制와 結負制에 관해서는 高麗末期以後의 狀況에 관해서는 比較적으로 잘 알려지고 있지만 高麗前期이전의 狀況에 관해서는 그 基本이 되는 面積의 評價에 대해서도 定說이 없다. 그 中에서 筆者는 高麗中期以前의 頃畝制와 結負制에 관한 基本史料의 모두에 대해서 符合性이 있는 解釋을 시도해 보았다.

특히 基本史料中의 基本인 文宗量田法에 관해서는 종래부터 그 割註의「六寸爲一分 十分爲一尺 六尺爲一步」에 錯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느 쪽의 解釋에 의해서도 이것도 基本史料인 「高麗圖經」의 記錄과 符合하지 않았다.

『高麗圖經』의 記載에 整合할 수 있는 합리적인 解釋은「六寸爲一分」을「四寸爲一分」이라고 읽는 일이다. 그 結果 文宗量田法의 規定은「田一結方三十三步 (四寸爲一分 十分爲一尺 六尺爲一步)」로 되고, 量田步는 기준척의 24尺 즉 周尺의 8尺1步에 의한 3步가 量田步라고 하는 중요한 結論에 달한다. 따라서 1結은 기준척의 步에 의해서 表現하면 方99步 즉 方100步로 된다. 이것은 종래부터의 定說인 頃 = 方100步와 대조하면, 結 = 頃을 意味하여 종래의 學說과 완전히 一致한다. 따라서「六寸」이「四寸」의 錯誤였던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周尺은『禮記』王制篇에 근거하는 復古尺이며, 원래는 周尺의 8尺1步는 古韓尺의 6尺1步와 같았다. 新羅時代의 1頃의 面積은 古韓尺의 方100步이며 25,664㎡로 試算되지만, 文宗量田法에도 結의 面積은 周尺의 方99步이며 거의 같다. 더구나 朝鮮前期의 世宗 19년의 頃의 面積도 25,709㎡로 試算되어 완전히 一致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는 오랜 期間에 걸쳐 頃의 面積은 일정하였다고 생각된다. 이것으로부터 文宗量田法의 時代에는 아직 結 = 頃 이었던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하여 結 = 頃의 制度에 대해서는 文宗量田法의 記事에 의해서 분명히 되었지만, 한쪽에서 崔致遠撰의 崇福寺碑文의 結에 관한 細註部分을 보면 結 = 0.9頃으로밖에 理解할 수 없는 記載가 있다. 이 細註에 관해서는 最近 尹善泰가 崔致遠의 自註라고 報告하고 있어 結負制에 관한 基本史料中의 基本史料이다.

그런데 面積의 1里는 9頃이다. 里 = 10結이라고 하면 結 = 0.9頃 = 9000步로 崔致遠의 自註에 잘 맞는다. 그렇다면 1000束이 1結이니까 方3步가 1束에 該當한다. 이것이 文宗量田法의 3步를 量田步로 하는 規定의 起源이 되었된 것은 용이하게 推察할 수 있다.

白南雲이 말했듯이 高句麗에서는 頃畝制가 百濟에서는 結負制가 쓰이고 新羅에서는 양자가 混用되어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어떤 時点에서 結을 頃에 一致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結 = 0.9頃으로부터 結 = 頃의 制度에 이행했기 때문에 方33步의 복잡한 規定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면 전부가 調和롭게 理解될 수 있다.

이 結果 結 = 0.9頃의 時代의 1束의 面積은 23.09㎡로 되지만, 이것은 日本의 町段制전에 행하여졌던 1代(束代)의 面積23.02㎡에 완전히 一致하고 있다.

日本에서의 代制의 起源에 관해서는 高麗尺설이 있었지만 疑問点도 많이 안고 있었다. 束把는 中國에는 보이지 않고 日本과 한반도에만 存在한 單位이다. 그것이 面積까지 一致하고 있었다고 하면 代制의 起源을 한반도의 結負制에 구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럽다. 이상으로 한반도의 古代結負制가 日本의 代制의 起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취후에 이상의 검토결과로보터 얻어진 頃畝制와 結負制의 面積추이

를 <표 2>에 정리하여 보았다.

<표 2> 朝鮮半島의 頃畝制와 結負制의 面積推移

	統一新羅 以前		文宗 23年 當時	
基準尺	古韓尺	26.7cm	周尺	20.2cm
步	6尺	1.60m	8尺	1.616m
量田尺 量田步	3尺 18尺, 3步	80.0cm 4.80m	4尺 24尺, 3步	80.8cm 4.85m
頃	方100步	25,600㎡	方33量田步	25,600㎡
結 (畝表示)	9000步	23,040㎡ 90畝	方33量田步	26,600㎡ 100畝
束		23.0㎡		25.1㎡
	高麗中期		朝鮮初期	
基準尺	周尺	20.2cm	周尺 10指尺	20.7cm 19.3cm
步	6尺	1.212m		
量田尺 量田步	3尺 18尺, 3步	60.6cm 3.63m	30指尺 180指尺	57.9cm 3.47m
頃	前代와 同	25,600㎡	60萬 周尺	25,700㎡
結 (畝表示)	方33量田步	15,150㎡ 60畝	方33量田步	14,780㎡ 57.6畝
束		15.2㎡		14.8㎡

統一新羅 以前 束의 면적은 日本 代制에서 束代의 면적과 같다.

謝辭

오랫동안 日本과 한반도의 古代計量史를 硏究하여 온 筆者는 일찍부터 韓國에서 硏究를 深化하고 싶다는 希望을 갖고 있었다. 이 希望을 들어 주어 韓國國立慶尙大學校에서의 硏究의 機會를 마련해 주신 同大學의 姜東湖名譽敎授와 許甫寧敎授 및 關係者에게 깊이 感謝드린다.

투고일 : 2003. 5. 16 심사완료일 : 2003. 6. 8
주제어 : 結負制, 頃畝制, 代制, 量田法, 古韓尺, 周尺

Abstract

The Restoration of Korean Ancient Gyeolbu-je(結負制) and the Origin of Japanese Dai-sei(代制)

ARAI, Hiroshi

It is well known that both Gyeongmu-je(頃畝制) on the basis of real farm area and Gyeolbu-je(結負制) on the basis of harvest had been carried out simultaneously in Korea but even the basic problem such as the real area evaluation before the middle Goryeo(高麗) has not been clear yet, mainly because there would be some writing error in a basic document Munjong Ryangjeon rule(文宗量田法).

However the following opinions are widely accepted such as, (1) before the early Goryeo(高麗), both Gyeol(結) and Gyeong(頃) were defined as the square 100bo(步), that is, 10,000bo, (2) but at the late Goryeo(高麗), Gyeol(結) had changed to 0.57Gyeong(頃) (3) There is a possibility that Gyeong(頃) in old documents are rewrote later from the original record Gyeol(結).

In this paper this author reexamined all the basic documents on Gyeolbu-je(結負制) and obtained the following adequate results agreeing with generally accepted opinions.

(1) The annotation 6chon(寸)" in Munjong Ryangjeon rule(文宗量田法) should be corrected as 6chon(寸)" referring to the same age record of Goryeodogyeong(高麗圖經).

(2) Consequently "Gyeol(結) = square 33ryangjeon-bo(量田步)" can be rewrote as "square 100bo(步)".

(3) The reason why the irregular system "ryangjeon-bo = 3bo" was introduced is that Gyeol(結) in late Silla was 9000bo(步) as shown in Sungboksa(崇福寺) inscription and 1sok(束) was defined as square 3bo (步).

(4) From the above discussion this author introduced the area of 1sok (束) in late Silla was 23㎡ which completely agrees with the area of 1sokushiro(束代) in ancient Japanese Daisei(代制).

These results would contribute to the investigation of the origin of Daisei(代制) from now on.

Key Word : land-system, Korea, Japan, ancient, history